

LNK(LoveNorthKorea) 주간기도(4월17일)

1. 선교지로 새로운 일꾼을 파송 하셨습니다!



3 월 말, 모퉁이돌선교회 본부에서 사역을 감당해 오던 일꾼을 선교지로 파송했다. 최근 중국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신학교 배달 사역이 활발해지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할 일꾼이 보내진 것이다. 코로나 이후 중국, 서진, 아랍과 인도차이나 등에서의 사역이 확장되고 있어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 달라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사역에 합당한 선교사들이 준비되어 보내짐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 북한의 복음 전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2024 년 대북제재 상황이 계속되면서 장마당이 생활 터전인 북한 주민의 삶은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처참한 지경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북녘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요한복음 3 장 34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 3 월말 파송 된 A 선교사를 위하여

선교 현장에 준비된 일꾼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파송받은 일꾼에게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사 주께서 보내신 그 뜻을 따라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북한과 중국과 서진에 충만케 하옵소서. 더하여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요청하는 일꾼들이 준비되어 보내질 수 있도록 우리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경배달과 신학교배달, 선교사배달과 교회배달, 구제배달 등의 사역이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득하게 하옵소서.

- B 선교사- 북한으로 파송한 사역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 1)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북한 사역 지도자를 훈련하면서, 주변국에서도 훈련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북한 지하교회를 이끌어 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2) 훈련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고, 훈련을 감당하는 B 선교사와 현지인 사역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 3) 북한으로 파송한 사역자들이 주님이 주신 자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 나가게 하옵소서.

- C 선교사- 현지에서 갖는 기도 모임을 통해 북한선교에 헌신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1) 삼엄한 감시로 북한 사역자 및 성도들과의 연락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들과의 연락이 원활하여서 사역이 활발하게 하옵소서.
- 2) 현지 사역자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 거부감이 있습니다. 사역자들과의 기도 모임을 통해 성령이 충만하고 신실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3) 장기간 훈련을 받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지도자들이 고향까지 무사히 도착하여 조사를 받을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지하교회 개척이 활발하게 하옵소서.

2. 경제난으로 교육에 공백, 아이들이 한글도 몰라



“학교 교육의 질이 아이들이 조선글(한글)을 읽고 쓰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이 떨어졌다. 자식들에게 개인 교사를 붙여 과외시키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열악한 교원 처우 문제가 꼽힌다. 교원들이 생활난에 허덕이니 아침에 얼굴을 잠깐 내비치고는 나가서 돈벌이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도 배우는 시간보다 자체 학습하는 시간이 더 많다.” 데일리 NK 에서 전하는 최근 북한 소식이다. 북한의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도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령감에 의하여 된 것으로 가르침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련하기에 유용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디모데후서 3 장 16~17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북한의 교사와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아이들이 없게 하시고, 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정직한 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북한의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사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22 번째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표결 없이 합의로 22년 연속 채택했다. 중국, 에리트레아, 쿠바는 합의에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결의안에는 탈북민과 관련하여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내용과 관련국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는 내용, 아울러 사상·종교·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개정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랜 인권 침해와 압제 아래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인 지원의 손길이 미치고, 복음이 전해질 통로가 마련되기를 기도한다.

“당신의 비둘기의 목숨을 맹수들에게 넘기지 마시고 당신의 가련한 자들의 생명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당신의 계약을 류념하소서 그 땅의 어두운 곳에 폭력이 들어찼으니 짓밟힌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련한 자와 빈궁한 자들이 당신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74 편 19~21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국가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시달리는 북한을 올려드립니다. 국제 사회의 거듭된 촉구에도 변하지 않는 북한 정권의 악행을 그치게 하사, 어려움 겪는 북한 주민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대북 핵협상 원칙이 수립되며, 복음이 전해질 통로가 마련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북녘의 성도들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중국 공안의 경고, 한국행 감행 시 북송돼 총살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최근 현지 공안으로부터 “한국행을 하다 잡히면 북송되고, 북송되면 총살”이라는 경고성 전화를 받아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데일리 NK 가 전했다. 특히 한국행을 시도하다 체포된 이력이 있는 탈북민들에게는 더 강하게 경고하며 조심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공안의 전화를 받은 탈북민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한국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곤경에 처한 탈북민들에게 복음 들을 기회와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고 연약한 무릎을 튼튼하게 해주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강하여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계시니 그가 와서 보복하시고 크게 갚아주시리라 그가 와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이사야 35 장 3~4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올려드립니다. 공안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허락하사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들뿐 아니라 중국 감옥에 갇힌 탈북민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 정부의 죄악이 그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신선한 온실 채소, 시민 아닌 국가 기관에 공급



“강동종합온실에서 여러 종류의 신선한 남새(채소)들이 수확되면서 지난달 말 선물 공급으로 국가 주요 기관들의 후방 공급소로 운반됐다. 이번 수확은 원수님 현지도 후 첫 수확으로, 평양시 주요 국가기관이 먼저 맛보게 하라는 것이 당의 지시다.” 북한이 강동종합온실에서 수확한 채소를 평양 시민이 아닌 주요 권력 기관에 공급했다고 데일리 NK 가 전했다. 북한 주민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복음 앞에 나아오도록 기도한다.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한일서 3 장 18, 23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말로는 인민에게 좋은 것을 먹인다고 선전하면서 온실 채소를 국가 기관에 선공급하는 북한 당국의 위선적인 행태를 고발하며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사, 복음 앞에 나오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 북한 노예 노동 수산물 한국에 유통



북한 주민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중국산 수산물이 한국으로 수출됐다고 미국 비영리단체가 확인했다. 바지락, 오징어, 명태, 우렁이 등 420t(2020~2022년)인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단체는 보고 있다. 중국의 수산물 가공 공장만 수백 곳에 이르고, 섬유·봉제 쪽에도 북한 노동자가 많이 고용돼 있으며, 러시아에 파견된 건설 노동자, IT 인력, 식당 종업원 등 전 세계에서 외화를 버는 북한 노동자를 합치면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노동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번 외화가 핵 개발에 사용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마침내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셨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다 하고는”

창세기 28장 15~16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을 환경과 귀를 열어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성경책을 받아 읽음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또한 해외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무기를 개발하는 북한 당국의 악행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